

2006년 3월 19일 시행

# 대구 지방직 국어 복원문제

김상곤 교수님 제공

1.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꼬나풀 ② 강낭콩 ③ 뱀비 ④ 숫강아지

정답: ④수강아지

2. 다음 글의 ㉠~㉢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매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매고  
㉢ 이 세상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리에 앉는다

㉔ 주저 않는다.

- ① ㉑은 을속도에서 정착해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㉒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시적화자의 냉소적 태도가 엿보인다.
- ③ ㉓은 시적화자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낸다.
- ④ ㉔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좌절감이 느껴진다

정답 : ① 영화의 화면 속

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들기둥 방해나 디히 히애

게우즌 바비나 지서 히애

아바님 어머님께 받잡고 히야해

남거시든 내 머고리 히야해 히야해

- ① 고려속요 중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최초의 월령체 노래
- ② 함축성 있는 시어로 소박한 정조를 나타낸 이별가
- ③ 밑줄친 '게우즌'은 '부드러운'을 뜻한다.
- ④ 촌부의 소박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유출된 노동요

정답 : ④ 고려속요 상저가(대악의 영향을 받은 노동요)

4. 발음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맑고[말꼬]
- ② 밭지[밭찌]
- ③ 담임[다밈]
- ④ 외곶으로[외골쓰로]

정답 : ②[밭찌]

5~7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그.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ㄴ.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大地)의 고백(告白).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쏟아지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5.시상의 흐름으로 보아 간밀하게 연결되며 주제를 형성하는 이미지끼리 묶인것은?

- ① 겨울-하늘-어둠
- ② 눈길-평화-어둠
- ③ 낯선지역-목념-적막
- ④ 어느나라-하늘-대지

정답 : ②고은, '눈길'에서 얻는 고요와 평화와 일시적인 안식

6.ㄱ.눈 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오늘은 철 늦은 서설이 내려  
비로소 벅그는 매화봉오리
- ②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 ③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 ④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있다.

정답 : ②순수(깨끗하려는 마음의 평화)

7.ㄴ.과 유사한 발상과 표현?

- ①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②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심심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③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 ④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운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 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

정답 : ③(역설법)-이형기의 낙화

8. 다음중 합성어가 아닌것은?

- ① 볶음밥
- ② 이것
- ③ 올벼
- ④ 맛있다

정답 : ③(파생어)

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술을 체에 받친다
- ② 회의에 붙이는 안건
- ③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④ 닭으로서 꿩을 대신한다

정답 : ③(받친다, 부치는, 닭으로써)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루하게 긴 다리를 지루하게 건너, 물구경 나온 인파를 헤치고 강둑길을 얼마 못 갔을 때였다. 뜻밖에 거기서 윤춘삼 씨와 마주쳤다. 험레벌떡 빗속을 뛰어오던 송아지 뺨깡이, 아니 윤춘삼 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물에서 막 건져 올린 사람처럼 젖어 있었다. 하긴 내 꼴도 그랬을 테지만.

“우짠 일인가요?”

하고 덩석 내 손을 검잡는 윤춘삼 씨는, 그저 반갑다기보다 슷제 고마워하는 기색까지 보였다.

“조마이섬은 어찌 됐소?”

수인사란 게 이랬더니,

“말 마이소. 자, 저리 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그는 나를 도로 다릿목 쪽으로 끌었다.

“아니, 섬 쪽으로 가 보려 했는데요?”

“가야 아무것도 없소. 모두 피난소로 옮기고, 남은 건 물바다뿐임더. 우짤라고 이 놈의 하늘까지! ……”

별안간 또 한 줄기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윤춘삼 씨는 나를 다릿목 어떤 가갯집으로 안내했다. 언젠가 하단서 같이 들렀던 집과 거의 비슷한 차림의 주막집이었다.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나 다급하고 또 수다한 말들이 두 사람의 입을 한꺼번에 봉해 버렸다 할까!

“건우네 가족도 무사히 피난했겠지요?”

먼저 내 입에서 아까부터 미뤄 오던 말이 나왔다.

“아…….”

해 놓고도 어쩐지 말끝이 석연치 않았다.

“집들은 물론 결단이 났겠지만, 사람은 더러 상하진 않았던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 놓고, 이내 후회했다. 으레 하는 빈 걱정 같아서.

“집이고 농사고 머 있는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밭새 영감이 또 안 끌려갔능기요.”

윤춘삼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건우 할아버지가?”

나는 하단서 그 접넛패에게 얼핏 들은 얘기를 상기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꺼정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냈임더. 글 안 해도…….”

기진 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어제 있던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 둔 엉터리 독을 허물어 버린 얘기였다.

—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독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 ? 갈밭새 영감이 선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혹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 섬 사람들이 한창 독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 독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달은 뒤라 한다. 웬 강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독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독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원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inker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밭새 영감의 팽이를 와락 뺏더니 물 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속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밭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돌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밭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 때는 독이 완전히 몽개지고, 섬을 치뒀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몽그적몽그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지요?”

게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해 구제의연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 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넘는 갈밭새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 학기가 되어도 건우 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10.㉠ 에 나타난 인물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 ① 노심초사 ② 망연자실 ③ 무념무상 ④ 절치부심

정답 : ①

11. 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인 것은?

- 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거리를 두며 논평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인물의 심리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③ 관찰의 결과만을 보여줌으로써 서술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작중인물인 서술자가 관찰자에 입장에서 중심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정답 : ④(1인칭 관찰자 시점)-복원된 보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2. 제시된 배경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조마이섬-부당하게 수탈당하는 민중들의 역사적 삶의 현실을 상징
- ② 한줄기 쏟아지는 비 -답답한 현실에 처해있는 인물들의 우울한 심리 상태를 암시함
- ③ 엉터리 독- 유력자들의 탐욕심으로 부터 섬주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함.
- ④ 황폐한 모래톱-유력자들의 탐욕심으로 인해 황폐화된 민중들의 삶을 상징함.

정답 : ③(탐욕의 표상)

13. 다음중 주체 높임법이 아닌것은?

- ①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십니다.
- ②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다.
- ③ 선생님께서는 그 책을 읽으셨다.
- ④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신다.

정답 : ②(객체높임법)

14. 다음중 의미하는 것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가)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엿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라  
 차라리 물가에 가 뱃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동정 된 저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나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히 소식이 더욱 아득한 저이고 (중략)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 하며  
 정을 못 다 하여 목이조차 메여 오니 오전된 계성에 잠은 어이 깨었는고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이나 되어 있어  
 님 계신 창안에 번 듯이 비추리라

각시님 달이야카니와 굶은 비나 되소서.

나)

二月(이월)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ㄱ.燈(등)人불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지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한 아으 滿春(만춘) ㄴ. 달윗고지여.

나매 브를 즈즐 디녀나셨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ㄷ. 곳고리새여

.

므슴다 ㄹ. 錄事(녹사)니만 넷 나랄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15.가)에서 다음 구절의 밑줄 부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  
서 잠조차 깨우는고?

- ① 빈 배 지      ② 지는 해      ③ 오전된 계성      ④ 어여쁜 그림자

정답 : ③(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16. 나)의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ㄱ. 燈(등)스불  
 ② ㄴ. 달윗고지여  
 ③ ㄷ. 곳고리새  
 ④ ㄹ. 錄事(녹사)님  
 ③

17. 문법상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하루에 다섯번씩 운행한다.  
 ② 그는 마음먹은 일을 절대로 하고 만다.  
 ③ 아버님께서 여행을 떠나시었다.  
 ④ 즐거운 주말을 되십시오

정답 : ③

18.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은?

- ①囊中之錐      ②囊中取物      ③囊中吹奏      ④囊中支出

정답 : ①

18~19 \* 다음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료다.

한국의 기업가들을 ~~~

성공적인 CEO라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첫째,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둘째,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셋째, 윤리성을 지녀야 한다.

19.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의도와 다른 것은?

- ①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중의 자금이 갈 곳을 잃은 탓이다.
- ②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는 이견회회장의 신년사가 화제다
- ③부전자전이란 말처럼 유일한의 부녀도 평생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 ④정치인의 불법 정치 자금이 여전하다. 정치 자금법입법이 무색할 정도로

정답 : ①

20. 위 지문의 서술 방식이 아닌 것은?

- ①도입 문단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천민자본주의와 성공적인 기업가를 대조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 ③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여러 이론을 들어서 복합적인 관점으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답 : ④

21. 중세 국어와 현대국어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때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은?

- ①역사성      ②사회성      ③상징성      ④불연속성

정답 : ①